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4월 7일(금)

..(음력 3월 11일)..

Пятница

7 апреля 2017 г.

№ 13 (11673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개나리>무용단, <지구의 미래>축전에서 1등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개나리>무용단(담임교사 김 엠게니아)이 3월 27일-4월 1일 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지구의 미래>국제청소년창작축제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동 학교 측이 전했다. 축제콩쿠르에는 벨로루시의 대표 예술단을 비롯해 전국 31지역의 예술단들이 참가했다.

심사위원회는 마린스키 극장 발레 무용수, 상트페테르부르크 립스키-코르사코프 국립음대·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문화예술대학교 수석 교수, '서부군사구 노래·무용양상블' 수석 안무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뮤지컬>발레극장 수석 안무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개나리>무용단은 콩쿠르에서 두 개의 춤(바라춤과 쟁강춤)을 추어 <민속무용>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바라춤과 쟁강춤은 한국 전통 불교무용으로 악기를 몰아내고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화평을 갈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여 쉬운 듯한 춤사위나 역동적이고도 예기치 못하는 춤사위로 나타내고 있다.

이 춤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할린의 소녀들은 갈라공연에서도 큰 환호를 받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에트노스>예술학교 제공)

## 사할린주정부와 <가스프롬> 가스화 문제 논의

지난 5일(수) 사할린주정부에서 가스화문제에 소집된 확대회의에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와 <가스프롬> 이사회 부회장 알레리 골루베브가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가스프롬>이 사할린에서 참여하는 가스화 프로젝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교통을 가스로 교체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사할린주는 가스채취로는 극동에서 선두에 서있다. <가스프롬>은 주예산에 대규모 세입을 가져오는 <사할린-2> 프로젝트의 주주이다. 2016년에 사할린주 예산은 <사할린-2>에서 들어온 세이비 745억 루블이다. <가스프롬>은 사할린주 내 각종 지역사회프로젝트, 문화 체육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할린주 가스화율은 13.1% 상태로 러시아 평균 지표보다도 5배나 낮은 편이다. 회의를 연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이것이 선두지역 프로젝트 실시에 있어 지역 사회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사할린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하게 되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의에서 노글리키구역과 트몹스크구역에서의 가스제반시설구축 공사의 완공 문제를 심의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즈나야>가스분배소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워스

토츠노예>부락 간 가스관 공사 문제를 논의, 자동차 가스 연료 시장 확대 문제 등도 심의했다. 문제점들은 사할린 가스화동력시장의 발전, 도서유전개발지역에서 가스프롬 자원기지, 가스프롬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끝에 주정부와 가스프롬은 더욱더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이와 관련해 유즈노사할린스크 가스화망 그래픽 작성과 일련의 다른 대상의 가스화 교체를 병행해 갈 것을 약속했다.

주지사에 따르면 2018년에 <고르니 워스두흐>선도개발 지역도 가스화 될 전망이다. 사할린주는 5년간 가스화프로그램으로 56억 루블리를 <가스프롬>에 지급할 예정이다.

2016년에 <가스프롬>은 사할린주 가스화 사업에 6억 루블리를 배당했고 올해는 2억 루블리를 더 배당할 예정이라고 골루베브 부회장이 밝혔다.

현재 공사 중인 가스제반시설구축이 시행될 경우 사할린주 가스화 이용율이 높아져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지속적인 도서지역 경제발전의 주요한 동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 단신

###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피해자 추모, 반테러 집회 열려

지난 3일 14시 40분 현지 시간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내에서 테러범이 사제 폭탄을 터뜨렸다. 5일 현재 1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4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정교회 성당성당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대주교 찰론이 테러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추모제를 지냈다. 애도의 추모제에는 사할린주 부지사 알렉산드르 체르노위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세르게이 나드사진이 참여했다. 이날 성당을 찾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 류이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사할린의 많은 주민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4월 8일 11시 사할린주정부 앞에서는 반테러 집회가 열린다고 전해졌다. 더불어 이날 13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레닌광장에서 너물수수에 반대하는 집회도 개최된다.

### 사할린 선수, 한국 제1회 국제오픈 유소년 삼보대회에서 성공적 성과

이번 주에 사할린주삼보연맹 대표단이 한국 전남 군산시에서 돌아왔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도칸>스포츠클럽, 홈스크·아니와·코르사코브·노글리키 스포츠학교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군산에서 열린 <러시아 삼보 유소년선수과 정읍파이트짐 선수 합동훈련>을 마친 후 제1회 국제오픈 유소년 삼보대회에 참여했다고 사할린주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주삼보연맹 유가이 알베르트 지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삼보의 인기가 점차 많아지고 한국선수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붙은 가운데 사할린선수들은 좋은 성과를 보여주어 15개 메달을 따냈는데 그중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 구세브 오하 시장으로 복귀 판결

3월 31일 오하시 재판에서 세르게이 구세브에게 오하 시장으로 복귀 판결을 내렸다. 3월 12일 오하 시장으로 선출된 후 세르게이 구세브는 5일간 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이에 대한 문서를 제때에 오하구역선거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구역 선거위원회 회의에서 구세브 시장 등록이 취소되었다.

31일 재판에서는 구세브가 범위반을 했지만 주민들의 뜻이 담긴 선거결과를 그런 형태의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결, 시장직으로 복귀했다.

### 주택프로그램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택보장을 위한 일부 주민 사회보조금 제공>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사할린주민들은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다기능센터 또는 주택정책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프로그램에는 다자녀가족, 젊은 가족, 젊은 학자와 전문가, 예산분야(국가지원기관) 근로자, 장애아 가족, 참전용사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등록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각 계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은 별도로 정해진 가운데 주택시장가격의 30%부터 60%까지다. 지원금은 인증서 형태로 제공되며 현재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물리는 관계로 시행정부에서는 다기능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롯데관광 크루즈, 5월 9일 사할린 코르사코브 입항

## 사할린, 한국 크루즈 준비 한창

### 사할린여행 목적을 이곳 한인들을 주제로 정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5월 9일 사할린에 <코스타 빅토리아호> 한-러-일 전 세선이 입항한다. 롯데관광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크루즈이다.

롯데관광이 크루즈의 한 목적지로 사할린을 정하고 관광객들을 인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0일(목)에는 사할린에서의 최종 준비과정 점검을 위해 롯데관광 안민호 크루즈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총 6명의 관계자들이 사할린을 찾았다.

사할린 방문시 한국대표단은 사할린에서의 관광을 맡은 <베들레헴>회사 장용운 사장과 동행하여 사할린주정부 관광청 나탈리아 오시포와 지도자 주경제개발부 제1아시아국 한 드미트리 국장 등을 비롯 당국 관계자,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코르사코브 항구, 세관 등, 대표자들과 만났다.

안민호 본부장은 "롯데관광은 2010년부터 8년 연속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크루즈배를 전세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한-중-일 크루즈를 해왔는데 작년에 처음 새 관광지로 동방의 진주로 불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택했다."고 말했다.

새 기항지를 선택해야 하는 생각에 작년에 처음 사할린을 방문한 그는 "다른 곳에 비해 볼거리가 뒤떨어져서 처음엔 걱정스러웠습니다. 작년에 사할린 사전 답사를 찾아왔을 때 코르사코브 방향의 언덕 때문에 쓰인 글을 읽고 장 사장님(<베들레헴> 장용운 사장, 기자주)이 해 주신 사할린한인역사 얘기를 듣고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야, 사할린에서 볼 것 하나도 없어도 이것 하나만 봐도 뭔가 느낌이 있다' 생각하고는 사할린을 관광



안민호, 롯데관광 크루즈 사업본부 본부장

지로 잘 선택했다 싶었습니다. 또 이번에 와서 보니 작년에 공사 중인 러시아정교회 성당과 전쟁기념관이 멋지게 완공되었으니 참 좋습니다."라며 사할린을 관광지로 택하는 이유를 밝혔다.

크루즈배는 5월 6일 속초에서 출항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들른 후 사할린으로 올 계획이다. 사할린까지는 2박3일이 걸린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사할린에 입항하는 날은 5월 9일 - 러시아 대조국전쟁 승리의 날 - 국가명절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를 나선 사할린주는 이번 크루즈의 중요성을 고려해 1800여 명의 한국관광객들을 위한 사할린여행이 지장없이 진행되도록 크루즈 마중 준비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 나탈리아 오시포와 주관관광 지도자는 가

이드와 같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이들(가이드와 자원봉사자)이 대중들 속에서 잘 보이도록 푸른색의 조끼를 착용하도록 제공할 참이다.

전승철이라 많은 시민들이 명절행사로 시내에 나올 것을 예측하는 가운데 한국 측도 이러한 지원에 반가움을 표했다. 주정부 측에서는 명절 당일엔 관광버스의 통행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크루즈 여행자 모두는 한국인들이다. 그래서 이번 사할린 여행의 주요 테마로 <사할린한인사>가 정해진 만큼 관광객 모두는 코르사코브 방향의 언덕을 찾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도 방문할 계획이다.

<코스타 빅토리아호>는 아침 9시쯤 입항하여 저녁 19시쯤 일본 홋카이도로 출발할 예정으로 사실 관광객들의 관광 시간은 길지 않다. 여러 코스로 움직이겠지만 그들의 목적지 중에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 <포베다(승리)>기념관, 주향토박물관과 레닌 광장 등이다.

성공적인 사할린관광을 위해서는 가이드가 한국어로 사할린을 소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작년 처음 롯데관광이 2000명의 관광객들에게 사할린방문을 추진하려는 의사를 표명할 때부터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이드 문제가 있었다. 50여 명이 섭외해 하나 <베들레헴>회사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가이드들을 위한 연수과정을 열기로 했다. 사할린국립대와 협약해서 5월 9일 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광 기초>교육 과정을 열었다.

수강생 모집은 주한인여성회를 비롯한 여러 한인단체 관계자, 신문·통신 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강생들은 매주 월-수-금요일에 러시아로 사할린 역사, 지리 등 강의(전 과정 46시간)를 들은 후 한국어로 사할린 안내문을 익히고 있다. 한국어 익히기 교육은 <베들레헴>회사 부탁으로 새로고친 문사에서 맡았다. 첫 한국어 테스트에 거의 80명이 지원한 가운데 50여 명이 통과했다. 수강생들은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학생, 한인단체 활동가, 일반인 동포들이다. 다수는 50-70세대의 한인들인데 일상에서 '부엌말' 외에 거의 한국말을 쓰지 않고, 한국어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라 한국표준어, 새로운 어휘 익히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도 이들은 조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어 익히기 교육에서는 봉사자 이옥분씨, 백봉순 대학생,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소속 <세종>한글학교 강사인 박영자 씨와 김종길 씨가 하고 있다.

지난 31일(금) 사할린국립대에서 수강생들과 만남을 가진 롯데관광 대표단은 크루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안민호 본부장은 특히 한인동포들이 자신의 역사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가이드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한편 안민호 크루즈 본부장은 5월 9일 배가 처음 사할린을 들어오지만 길터졌으니 앞으로는 한국만 아니라 외국 배들도 많이 사할린에 올 것이라며 사할린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사할린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곳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갑니다. 한국은 요즘 중국에서의 미세먼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나쁜데 좋은 공기로 보약을 먹는 듯하여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안 본부장은 이번 사할린방문 소감을 표명했다.

2000여명의 한국 관광객들에게 사할린 여행이 마음에 들길 기대한다.

(배순신기자)

## 이 모 저 모

### 사할린, <불멸의 연대>행진 준비 시작

5월 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는 <러시아 불멸의 연대>행진을 전국국민 애국 운동 지역본부에서 준비하기 시작한다.

행사에 모든 희망자들의 참가를 접수하고 있다. 행진은 전승절을 맞이하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콤무니스찌체스키 프로스펙트와 고리키 거리로 통과하여 행진하게 된다.

각 참가자들은 대조국 전쟁에 참가했던 자신의 가족(친척 조상) 사진들을 들고 행진에 나선다.

자유 형태로 작성하는 행사 참가신청서는 전국민 애국운동의 지역본부에서 5월 8일 14시까지 접수한다. 기관이나 협회의 신청 같은 경우 기관의 명이나 공식 대표자의 성함, 연락처와 행진에 예상하는 참석자 수를 기입해야 한다.

신청서는 메일region65@polkrf.ru 또는 militer@mail.ru, WatsApp: +79147424872로 받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안드레이 푸젠피로브 지역 본부장이다. 일반교육기관의 신청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육관리국으로 보내도록 한다. 엘레나 타스카예와 코디네이터의 전화 번호는 (8(4242) 31-26-87) 추가 5이다.

문의전화: 8(4242) 73-31-17.

###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к шествию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Штаб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гражданск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начинает подготовку к шествию,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9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желающих. Шествие пройдет п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проспекту и улице Горького и станет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общего комплекса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Победы.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должен выйти на шествие с портретом (портретами)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инимавших участие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произвольной форме региональным штабом движения до 14:00 8 мая. В заявке от учрежд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полное название учреждения, ФИО координатора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его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и предполагаем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шествия.

Информация о времени и месте сбора будет сообще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сообщает ИА Sakh.com со ссылкой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штаб движен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region65@polkrf.ru или militer@mail.ru, по WatsApp: +79147424872. Координатор — Андрей Фугенфир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движения. Заявки от средних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правляются в департамент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ординатор — Елена Таскаева, телефон: 8(4242) 31-26-87, добавочный 5.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4242) 73-31-17.

### 사할린 체호브센터 연극단 소치에서 공연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소치에서 열리는 제7회 <연극 올림푸스>연방페스티벌 특별프로그램의 일환과 사할린주 형성 70주년 기념행사로 사할린 체호브센터 극단의 공연이 소치에서 있을 예정이다.

겨울극장의 무대에서 도서지역 배우들은 3개의 연극을 상연하게 되는데 첫날에는 유명한 연극감독이자 러시아 명예술가인 알렉세이 페세고브가 연출하여 이번 시즌에 초연인 "벚꽃 동산"을 휴양도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관람하게 된다.

4월 26일에는 사할린연극단이 가족을 위한 밝고 재미있는 연극 <빛-달>을 상연하고 가벼운 코미디 오락 형태의 <체호브의 농담>극(감독 안톤 코왈렌코)으로 순회공연을 마칠 예정이다.

체호브센터의 극단은 벌써부터 소치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공연을 위한 예술 장식품들은(무대 장식품, 의상 및 부속품) 이미 보낸 상태로

이번 순회공연차 약 40명이 소치로 떠날 예정이라고 체호브센터 홍보실은 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ий Чехов-центр поедет на гастроли в Сочи

С 25 по 27 апреля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VII федер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Театральный Олимп" в Сочи пройдут гастро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Чехов-центра, приуроченные к 70-лет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сцене Зимнего театра островные артисты представят три спектакля. В первый день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курорта увидят премьеру этого сезона - «Вишневый сад» в постановке извест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режиссера, заслуженного деятеля искусств России Алексея Песегова. 26 апреля сахалинцы покажут яркий, динамичный спектакль для семейного просмотра «Свет-Луна» (режиссер Даниил Безносков). Завершит гастроль легкий комедийный дивертисмент «Шутки Чехова» (режиссер Антон Коваленко).

Труппа Чехов-центра в предвкушении встречи с сочинским зрителем. Для выступления уже отправлен контейнер с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оформлением спектаклей (декорации, костюмы и реквизит). Всего на гастроль отправятся порядка 40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Чехов-центра.

### 서울, 롯데월드타워 개장

4월 2일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본격적으로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쇼와 레이저쇼가 열렸다. 11분간 3만여 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이 행사에 사용된 화약의 무게만 4톤이 넘고 비용도 40억 원에 달했다. 4월 3일 초고층 건물에는 공식적 개막식이 있었다. 롯데코르포레이션 지도부는 롯데월드타워 개장은 롯데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6년 전에 착공된 이 건물은 555m 높이 123층으로 2017년 현재 한국 내 최고층이며 전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건축물이다. 건설에는 에펠탑 7개를 공사할 수 있는 강철 5만 톤, 10만 평방미터의 아파트 3500세대 공사에 상당되는 콘크리트 22만m³를 사용했다. 롯데월드타워의 총 면적은 80만m³이다.

(8면에 계속)

# 주명수 화가의 <사할린. 미의 세 면>

3월 30일(목) 17:30에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주명수 화가의 <사할린. 미의 세 면(스케치 인쇄, 사진, 아크릴)> 전시회가 열렸다.

러시아화가연맹 회원인 주명수 화가는 1948년 10월 사할린주 코르사코브에서 출생으로 유럽의 싹과 동양의 뿌리가 얽혀있는 이름난 사할린 동포화가이다. 독특한 그의 작품은 항상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을 끈다. 이번 전시회 개막에서도 역시 많은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찾아 다양하게 소개된 주 화가의 작품들을 돌아보았다.



(취재: 이에식기자)

그의 작품의 주요 주제는 사할린이다. 그의 작품 속에는 사할린과 관련된 것들이 반영되어 있고, 소수민족 넙흐를 소재로 삼기도 했다.

“저는 사할린을 총체적인 면(회화, 포토그래픽, 스케치 사진인쇄)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주명수 화가는 작품의 의도를 밝혔다.

<사할린의 해변가>아크릴 시리즈는 출판된 사진과 비슷한 점이 있다. 주 화가의 사진에는 부세호수, 투나이차 호수, 로시스카야산, 안개 속의 사할린 자연 등은 작가만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반영돼 있고 화가는 회색을 즐기는 듯했다. 빨려드는 신기루 속의 회색 눈과 창백한 안개 속의 풍경, 배경은 깊고도 풍성한 색으로 묘사되어 작품 속에는 그의 철학이 흠뻑 묻어나 있다. 주 화가의 작품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볼 수 없는 화풍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명수 화가의 작품 속에 묘사된 사할린에서 관람객들은 그가 지닌 사할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할.린.

##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그런데 증언대회 참가자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91세의 고령으로 방문단의 전체 일정을 소화한 그분은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1세로,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팔 선생이었다.

일본에서의 공식 일정을 모두 끝낸 2013년 3월 28일. 나는 묵고 있던 YMCA 건물에서 짐을 챙겨 나온 후 두어 시간을 달려 이희팔 선생의 자택에 도착했다. 다른 선물들과 함께 KIN(지구촌동포연대)에서 제작한 남사할린 지도를 드리니, 선생은 지도 위에 쓰여 있는 지명들 하나하나를 손으로 찬찬히 짚어가며 당신 가슴에 저장돼 있는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 평범한 스무 살 청년의 특별했던 선택

이희팔. 그는 1923년 4월 7일, 경상북도 영양에서 태어났다. 애고 어린이고 동네 사람 거리가 변변한 신발 한 켤레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닐 만큼 가난했던 시절. 그나마 어린 희팔은 아버지와 고모의 노력으로 소학교 6학년까지 마칠 수 있었지만, 타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시골마을에서 괜찮은 직업을 얻어 가난을 면하기란 불가능했다.

그가 사할린 돌린스크에 있는 인조석유 주식회사의 갱외부 모집 광고를 보자마자 곧바로 신청서를 들이민 것은 그 때문이었다. 고향마을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50전 벌기가 어려운데, 그곳에서는 하루 일당이 4, 5엔이나 된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마음이 끌렸다. 또한 제아무리 타국 생활이 고되고 외롭다 한들, 2년이면 목돈을 손에 쥐고 귀향할 수 있다는데 그게 뭐 대수이라 싶었다. 그때가 1943년, 그의 나이 스무 살이었다.

마침내 사할린으로 떠나는 날. 그는 집합 장소인 영양군청 앞에서 거기 모여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안동역으로 갔다. 어머니가 이십 리 길을 걸어 마중을 나왔다. 아들 걱정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2년만 지나면 돌아오니 걱정 마시라고. 물론 그도, 어머니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모자母子 사이에 오간 마지막 대화가 되리라는 것을.

그는 안동역에서 부산으로 간 뒤, 거기서 다시 시모노세키로 향했다. 그러고도 기차로 갈아타고 교토, 우에노 등지를 거쳐 아오모리까지 가서야, 그들 일행은 비로소 하룻밤을 쉬어갈 수 있었다.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길 위에서 먹고 자는 여정은 계속되었다.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와 와카나이를 지나서 사할린에 도착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코르사코프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돌린스크의 브이코프로 가야 했다. 고향땅인 영양에서 사할린의 브이코프 탄광촌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알았다.

### 2년 후, 그는 왜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나?

탄광촌 생활은 예상보다 더 힘들고 고되었다. 거기서 그가 한 일은 탄부들이 굴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도구를 나눠주고 수리하는 것. 그 일이 비록 갱내 작업보다는 수월했는지 몰라도, 작업 조건과 환경이 워낙 좋지 않았기에 일이 끝나고 나면 늘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게다가 한창 팔팔할 청년인 그에게는, 무엇보다 먹을거리가 부실하다는 점이 고역이었다.

"그 지역이 바닷가 인근이어서 청어가 아주 흔했거든. 그런데 그마저도 조선인에게만 배당이 되지 않는 거야. 한 번은 비린 것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일본인이 먹다 남긴 청어 대가리를 주워 먹고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배탈이 나는 바람에 며칠 앓아누웠어."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월급이 전시보국 우체국으로 '강제' 저금되는 바람에 현금을 만져보기 어려웠다는 점도, 그로서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고향에 송금을 하는 날이면 마음이 뿌듯하고 위로가 되었는데, 훗날 확인해 보니 집에서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나중에 일본에 들어 와서 돈을 돌려받긴 했어. 그동안의 월급에 이자를 보탠 금액이라고 4천 엔을 주더라고. 물가는 수백 배 뛰어들었는데 과거에 계산한 대로 월급을 주니 우리한테 엄청 손해지."

하지만 먹을거리가 부족해 항상 배고픈 것도, 월급이 강제로 저금되어 행방이 묘연한 것도, 작업 계약 기간이 끝나가던 2년 후 돌연 찾아온 상황에 비하면 문제가 아니었다. 1945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즈음의 어느 날, 일본군 헌병들이 조선인 노동자 전원을 광장에 집합시키더니 "이런 비상시기에 어디에 간단 말이나. 오늘부터 너희들은 현지 재징용이다"라고 엄포를 놓는 게 아닌가. 이로써 그를 포함해 많은 수의 조선인들은 목돈을 쥐고 고국으로 금의환향하는 대신, 현지 징용자가 되어 사할린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

### 5월 9일은 대한민국대통령 선거일

## [중앙일보 여론조사] 양자대결 시 안철수 50.7%-문재인 42.7% 홍준표 · 유승민, 완주 의사 밝혀...실제 단일화는 미지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4~5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양자 가상대결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50.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42.7%로 나타났다.

양자대결을 가정할 경우 안 후보는 대구·경북지역(TK·62.9%)과 충청지역(54.7%)에서 문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지지층이 안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준표·유승민 후보 모두 완주를 다짐한 바 있고 안철수 후보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무선전화(68.1%)와 유선전화(31.9%)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이며 응답률은 29.4%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http://www.nesdc.go.kr)) 참조.

(서울=포커스뉴스) [뉴스레터-국민의당 재외동포국(2017.4.6.)]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서천 사할린 귀국 동포 노부부 긴급수술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가 희망풍차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천군 서천읍사무소에서 긴급 위기가정으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 최모(남·74)씨에게 긴급 수술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최씨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척추, 신장 질환으로 긴급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할린에 거주하는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됐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솔루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 수술비 300만원과 함께 앞으로 1:1 희망풍차 봉사원 결연활동으로 최 모씨를 생활을 지속적으로 돕기로 했다.

한편 유회장은 "어렵게 돌아온 고국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노부부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사할린 동포의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신문]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получило статус основного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Ван Аньши оказался персона нон-грата, сопоставлявшейся с Ван Маном. Область интересов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а оказалась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округ идей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персональной этики и метафизик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оказались на периферии философской системы.

Подобные взгляды могли возобладать только в эпоху Мин, когда государство достигло высокой меры стабильности. После захвата Кайфэна чжурчжэнями (1127) и потери севера страны мыслители эпохи Сун были заняты вопроса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енного усиления и другими практическими вопросами.

Политическая атмосфера эпохи Сун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взаимопроникновению различных религиозных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течений: сам Ван Аньши и ряд его сторонников были южанами и впитали элементы буддийск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го на Юге. Их реформатор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четалась с этикой благодетеля Махаяны. Оппоненты реформ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происходили с Севера, где 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м был даосизм. В сочетании с консерватизмом он, парадоксальным образом, сделал их поборниками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недеян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активности Вана буддизм, наоборот, приобрёл черты активной и обмирщённой идеологии. Последующее падение севера ускорило динамику слияния религиозных взглядов: конфуцианские мыслители восприняли буддийское понятие сердца-сознания и комплекс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трансцендентном.

Эпоха правления монгольской династии Юань превратила ортодоксальное конфуцианство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деологии в одно из периферийных китайских учений, первоначально возведя в стату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деологии элементы буддийской махаяны, транслируемой через посредство тибетской традиции буддизма. Однако монгольский двор со временем китаизировался. В 1315 году Буянту-х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ряда неоконфуцианцев, связанных с его двором, возобнови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экзамены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и этом обязательным к изучению канонам была впервые сделана выборка Чжу Си: Четверокнижие и Пятикнижие. Ряд неоконфуцианцев играл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при дворе по з д н е й Юань, среди них выделяется Оуян Сюань.

Монгольское владычество было свергнуто на волне религиозных беспорядков, носивших окраску народных апокалиптических верований. Наиболее значительный повстанческий вождь Чжу Юаньчжан, нуждаясь в гражданском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и захвач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ивлёк к себе на службу целый ряд находившихся ранее не у дел южнокитайских интеллектуалов-неоконфуцианцев; когда в 1368 году он стал императором,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как символ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 правах всех кита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в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монгольским), вновь стало основной идеологией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 этом произошёл некоторый уклон в сторону конфуцианской ортодоксии, но он не отразился на авторитете Чжу С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Рис. Чжу Си (1130--1200)

## ПРЕЛЮДИЯ К ТВОРЧЕСТВУ

«Дю Мен Су – художник, который открыт Времени». Такие строки можно прочесть в буклете, чьи страницы посвящены заслуженному сахалинскому художнику России Дю Мен Су. Его работы собрали не только ценители искусства, но и простых людей, решивших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в одном из зал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30 марта на выставке «Сахалин. Три грани прекрасного».

Первым, кто «перерезал ленточку» и открыл выставку, был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Бурька, поздравивший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с открытием выставки художника, который «постоянно продолжает удивлять, заставляет думать, переживать». Сейчас эти слова кажутся премного обобщёнными, обыденными, но, когда эта завеса, черта не постижимого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перед тобой, понимаешь, что есть, над чем задуматься, чему удивиться...

Например, картина из серии «Наваждение», которая не смогла оставить равнодушными многих посетителей, совместила в себе фотографию берёзовой рощи, некогда находившейся на месте супермаркета «Столица», и квадрат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отнюдь не берез, не деревьев, а ржавой баржи, посуды, на вершине большой ледяной скалы. Кажется, это настоящий оксюморон, созданный кистью, но у художника графика не все так просто. По словам автора картины, не задолго до вырубки берез, ему удалось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запечатлеть этих тонкостальных красавиц, вдохнуть свежесть живой природы, на смену которой со временем пришли бетон и сталь. Чувство холода и протеста

симфонично слились в этой картине.

Еще много красивых слов прозвучало в адрес работ Дю Мен Су, но истину мог знать только один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выставки делился частичкой своих воспоминаний, переживаний, мыслей с присутствующим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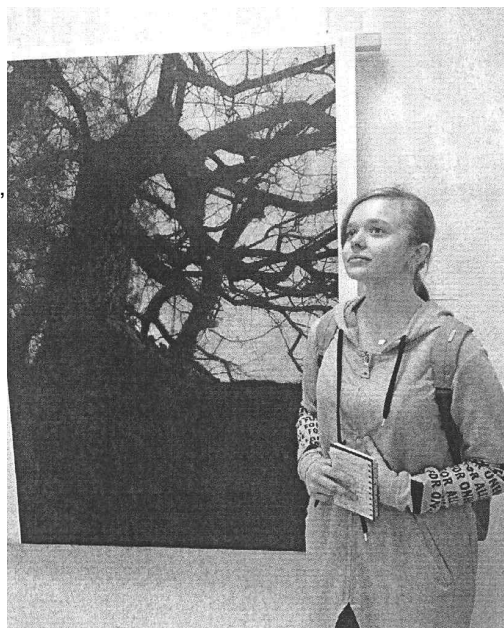
Обстановка была комфортная и уютная,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мог задать вопрос автору картин, что мне и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сделать. Больше всего меня, и думаю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интересовало, какими тропами, взлетами, падениями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такая масштабность.

Ответ вмещал в себя, скорее не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ие ссылки, а философск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Для меня это, несомненно, хорошо, что я могу работать в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акрил, графика и фото. Я был музыкантом, музыка живет внутри меня и поэтому талант импровизации, умение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помогают мне на всем творческом пути», – сказал художник о своем творчеств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картина «Берега Сахалина» также собрала перед собой посетителей выставки. На ней акриловыми красками плавными и лёгкими движениями нанесено море, небо, сопки. Кажется просто, но в простоте этой и заключается сложность. А именно – перелив цветовой гаммы, создающий веселое, солне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и только немногие, может быть, смогли услышать дуновение ветерка, приглушаемый эхом бьющихся о берег небольших волн.

«Это лишь прелюдия будущей грандиозной выставки, которая со-



стоится в 2018 году в большом зале музея», – такие слова прозвучали во врем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работ Дю Мен Су.

Думаю, после этой «прелюдии» все те, кто побывал на ней, будут жить в ожидании нового события. Ведь многим и на «трех гранях» удалось не только увидеть новые шедев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Дю Мен Су, но и поговорить с ним лично, стать ближе к миру искусства.

Еще много можно прочесть в интернете о выставке, дочитать в буклете, услышать от друга, но увидеть можно только здесь и сейчас. Давайте не будем терять времени, ведь в мире еще так много неразгаданного и волшебного!

**ДАРЬЯ СОРОКИНА,**  
ученица 10 класса средней школы  
№ 9 с углубленным изучением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Сахалинские самбисты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Открытого Первенства Кореи

Спортивная делегация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нулась из 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 Гунсан, где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х сборах и Открытом Перве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ред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по самбо.

В состав островной дружины вошли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 тренеры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Дзюдокан"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 Холмска, Анивы, Корсакова и Ноглик.

Тренирово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ходил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емикратного чемпиона Мира по самбо Раиса Рахматуллина, в рамках подписа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Федерациями самбо Кореи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юные самбисты познавали секреты мастерства от легендарного спортсмена, оттачивали приемы самбо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на двухразовых тренировках, а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знакомились с местным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и. По окончании сборов островные самбисты приняли уча-



стие в Открытом Первенстве Кореи сред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Сейчас в Стране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роисходит настоящий бум самбо, и уровень корейских самбистов очень сильно возрос. Но, несмотря на серьез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нашим спортсменам удалось не только занять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но и подняться на высшую ступеньку пьедестала,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стровной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Альберт Югай.

Победителями первенства ст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Кондратьев Тимофей, Пак Алексей, Носков Владислав, Мордвичев Сергей, Югай Ана-

толий, холмчанин Антонов Роман, Степаненкова Татьяна из Корсакова.

Серебряные медали завоевали Резников Илья, Пан Александр, Коваленко Матвей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тонов Владимир из Холмска и Ким Владислав из Анивы.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в акт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есл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Акатов Дмитрий, Качаев Олег, Скоробогатов Савва.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Испытание Севером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могло быть неудачным

В среду в 6:42 утр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в районе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Синпхо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Намдо испытание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реднего радиуса действия «Пуккыксон-2».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никак не освещают проведённое 5 апреля испытание свое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В день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овокации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не делало каких-либо заявлений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Обычно в случае успешного ракетного испытания, прошедшег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это широко освещается местными СМИ. Учитывая ны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последний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оказался неудачным.

## Кандидаты в президенты приступили к предвыборной гонке

Ан Чхоль Су, ставший 4 апреля официальным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приступил к предвыборной гонке с кандидатом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Мун Чжэ Ином. Последний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внутрипартий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артии Чху Ми Э. Между тем, 4 апреля,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утверждения кандидата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Ан Чхоль Су заявил, что станет президентом для народа. Получив статус официального кандидата, первым делом он намерен посетить Национ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а затем Сеуль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втосалон Seoul Motor show,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в Корей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KINTEX в городе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Между тем, 5 апреля бывш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врем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им Чжон Ин объявит о своем участии в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 будет продвигать формирование еди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ез уклона в сторону прогрессивных или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сил. Кандидат от партии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Хон Чжун Пхё сформировал избирательные комисс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Тэгу и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начать предвыборную кампанию. Затем он посетил дом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Чон Хи, подчеркнув сво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консервативным силам.

## РК готова принять сборную КНДР на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Пхёнчха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мет сборную КНДР на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2018 в Пхёнчхане, если Пхеньян выразит желание принять в них участие. Об этом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Ли Док Хэн.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анкции ООН и отдельных стран, нет ника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участие СК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Чхве Мун Сун сообщил о том, что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КНДР, посетивший на днях город Каннин в рамках группового турнира второго дивизиона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женскому хоккею с шайбой, указал на желание сборной КНДР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Пхёнчхане.

##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явился первый интернет-банк

3 апреля в РК приступил к работе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интернет-банк под названием K-Bank.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овый банк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впервые с 1992 года. K-Bank работа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онлайн режиме, не располагая филиалами. Среди плюсов этого то, что он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круглосуточно и без выходных. В понедельник председатель Финансового комитета РК Им Чжон Рён заявил, что с появлением интернет-банка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м финансовом рынке началась новая конкуренция, поскольку за счёт экономии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филиалов 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трудников интернет-банк может повысить процентную ставку для депозитов и снизить ставку при кредитовании. Кроме того, K-Bank представляет кредиты до 3 млн вон или 2.695 долларов пр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личности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спознавания отпечатка пальца. 14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Финансового комитета РК был окончательно одобрен план создания первого в стране интернет-банка под названием K-Bank. Второй подобный банк - Какао Банк -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нынешнего года. (RKI)

## Въездн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изм

# «ВИФЛЕЕМ» ГОТОВИТСЯ К ПРИЕМУ КРУИЗНОГО ЛАЙНЕРА,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ПРИБУДЕТ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РОССИЙСКИЙ ОСТРОВ

9 мая в порт Корсаков запланирован заход круизного лайнера «Коста Виктория». С него на остров высадутся 2 тысячи турист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событие значимое для Сахалина.

Масштабна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развернута известн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туроператором «ВИФЛЕЕМ» при участии местных педагог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яда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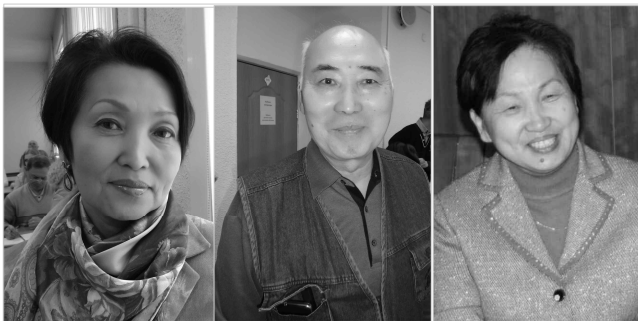
Для тех, кто готов поработать гидами-переводчиками с компанией «ВИФЛЕЕМ» организованы курсы п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Основы экскурсоведения». Этот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 Южно-

который более 200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представлял из себя полуостров, так и его заселению людьми, появившимися здесь в давнюю эпоху палеолита – в древнем каменном веке...

А вот о том, почему десят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шили получить профессию экскурсовода, наш корреспондент постарался узнать в перерыве между занятиями, когда аудиторию заполняла очередная группа.

– Учиться очень сложно, – призналась слушательница Хан Ен Хи. – Но я решила заключить договор с компанией «ВИФЛЕЕМ» на обучение, потому что нам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а у меня есть интерес к работе гид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 общению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 На Сахалин впервые приезжает столь большая группа турист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добавил слушатель Пак



Хан Ен Хи

Пак Мун Су

Ким Ве Чери

Сахалин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колледж СахГУ, 15 марта начато обучение гидов со зн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сл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собес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сотрудниками «ВИФЛЕЕМ» и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уровень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веденного с помощью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издающейся на Сахалине, к занятиям приступили 53 сахалинца самого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 от студентов до пенсионеров. Проект значимый и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 ему посвящена эта статья.

В один из мартовских дней наш корреспондент побывал в педколледже.

– Для них мы подготовили две программы, рассчитанные на слушателей, которые либо вообще не проходили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либо имеют начальное, среднее и высш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Елена Казанцева. – По окончании курсов первым из них мы вручим сертификат,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ий о получении знаний по основам экскурсоведения, а вторым –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по экскурсионн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Зан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в объёме 46 академических часов, а в целом курсы планируются завершить 30 апреля.

В просторной и оснащённой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аудитории, вмещающей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слушателей, проходит обучение в интерактивной, диалоговой форме.

– Туристы могут задать вам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напрямую не относятся к экскурсии, – предупредил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лександра Крылова. – Практик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многих гостей интересует также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той территории, куда они приехали. Поэтому нынешняя лекция посвящена ка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Сахалина,

Мун Су. – Я хочу поработать гидом-переводчиком,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так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проекта, мне интересно провести для них экскурсии. Для этого также надо глубже из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Компания «ВИФЛЕЕМ» обратилась в нашу организацию с просьбой помочь им собрать желающих учиться и поработать 9 мая гидами-переводчиками, – сообщила слушательница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Ким Ве Чери. – Мы очень рады такому основательному подходу компании «ВИФЛЕЕМ» к подготовке гидов со зн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х применения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поприще. Да, надо много заниматься: домашние задания выполнять, тексты учить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зачёты сдавать... Зато, как народ оживился – глаза загорелись, учатся, стараются... Мы же понимаем - надо достойно встрети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Большинство желающих поработать в приёме и обслуживании туристов с лайнера «Коста Виктория» выдвинула живущая на Сахалине, одна из самых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в Росси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Причём, наряду с учёбой, экскурсоведению слушате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лучают большой объём языковых знаний.

– Языковой модуль подготовки гидов нам предложила провести компания «ВИФЛЕЕМ». Ими же предложена гибкая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помощь в освоении текстов экскурс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рассказала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 Мы выстроили систему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стараемся не упустить ни одного слушателя вниманием: выяс-



нить, в чём сложность освоения материала, помочь не только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навыков языковой практики, но и в особенностях «присвоения» языковых форм и лексики. На основе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ЮСПК СахГУ экскурсио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мы готовим текс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ши занятия идут в колледже параллельно основным лекциям. Задача слушателей не только в заучивании текста, но и в изложении информации в свободной, доступной для туристов форме. А это непросто,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казать об истории и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пользуясь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ексикой и специальными терминами. Еженедельно мы принимаем зачёт по тексту, и каждый слушатель пробует себя в роли гида, ведёт диалог с «туристами».

Слушатели, будущие гиды – половина аудитории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 им учиться трудно, но их отлича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ость. У пенсионеров больше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и огромное желание учиться,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уже имеющиеся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менить их с пользой, получить в их возрасте документ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 наконец,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меют сильную мотивацию – сопровождать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своей род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Этот параллельный курс, по словам Виктории Бя, также завершится в конце апреля. Вместе с ней языковые навыки слушателям стараются привить добровольные наставники Ри Ок Пун, Ким Ден Гир, Пак Ен За и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Елена Бек.

У предстоящего визита турист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сть и ещё одна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прибытие лайнера «Коста Виктория» намечено на 9 мая. Россияне празднуют его как День Победы, а в ходе различных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митинги и военный парад, для движения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перекрываются многие улицы и площади. Поэтому к организации достойной встречи круиза проявили внимание и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пункта пропуска уже внёс в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схему заход этого лайнера 9 мая, – сообщил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 туризму Наталья Иванова. –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вести совещани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яд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проезд автобусов к нужным объектам. Возможно, в маршруты всё же придётся внести некоторые коррективы, но мы постараемся, чтобы туристы посетили комплекс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узей и другие места, где планируются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Это первый такой круиз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он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ен. Будем рады, если гостям всё понравится, а компания «Лотте Тур Дивелопмэнт Ко» планирует и дальнейшие круизные заходы на Сахалин в 2018 и 2019 годах...

Сергей Сактаганов  
(корпоративная газета ООО Вифлеем)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кратят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цедур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намерены уменьшить средние сроки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 108 до 90 дней,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с 17 до 10 дней, подключения субъектов бизнеса к электрическим сетям с 86 до 70 дней, постановки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на кадастровый учет с 30 до 25 дн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которая накануне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открытого форума прокуратуры по вопросам обеспечения законности и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климата для бизнеса.

В диалоге,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на площадке облдумы, помим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участвовали члены правозащ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щественники, руководители бизнес-структур.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оводов для встречи в данном формате стала неурегулированность в вопросах оплаты хозяйствующим субъектам исполненных контрактов, отметил прокурор области Николай Рябов. Этой теме недавно было посвящено совещание генеральной прокуратуры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блема актуальна для уровня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Муниципальные бюджеты сегодня имеют многомиллионные долги перед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Образовались они в результате заключения контрактов, не обеспеченных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Над решением проблемы сейчас совместно работают органы прокурату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и райо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 регионе выявлено более 800 нарушений в сфер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бизнесе. И по итогам прокурорск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му сообществу выплачено около 27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онечно, органам в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страивать эту работу, чтобы организации, добросовестно выполнившие работу в рамках контрактов, в максимально короткий срок получали расчет, - отметил Николай Рябов.

По мн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Сахалинской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Ильи Каверина, остроту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поможет снизить измен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ечь идет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44-ФЗ. С инициативой установить 10-дневный срок для оплаты по контрактам, заключенным с субъектами мал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и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и некоммер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Госдуму вышла Российская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Это позволит в слож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сохранит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ую инициативу, - считает Илья Каверин.

В продолжение разговора неск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рассказали о наиболее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ах,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ись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ехватка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расширения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ства, сложный рынок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нерав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и неместных компаний в сфер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се ваши предложения и замечания услышаны. Уверена, такой прямой и честный диалог пойдет на пользу всем его участникам. Мы готовы и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одолжать подобную практику - встречать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бизнеса, чтобы впоследствии, с учетом их пожеланий и в их интересах, принимать важные решения и новы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на уровне региона. - обратилась к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му сообществу Вера Щербина. Для улучшения бизнес-климата,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ализуются меры н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Прежде всего, требуется ликвидировать различные чиновничьи барьеры и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нахожд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цедур.

Губернатор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област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задачи сократить сроки получ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разрешени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среднем со 108 до 90 дней. Период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должен уменьшиться с 17 до 10 дней, подключения субъектов бизнеса к электрическим сетям с 86 до 70 дней, постановки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на кадастровый учет с 30 до 25 дней, - сообщила Вера Щербина. - В этом году принят новый порядок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ме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убъекта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Основной акцент сделан на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остижения определенных целе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 например, по созданию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или рабочих мест.

Среди мер поддержк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 лизинг техники,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и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кредитам, а такж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техническое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капитальные расход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стречи с островными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ми продолжатся. Задача - выявить главные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совместно выработать оптимальные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больше не хотят торговать привозными огурцами

Об этом было заявлено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штаба по мониторингу и оперативному реагированию на изменение конъюнктуры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ынков при заместите-

ле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Игоре Быстрове.

Как долож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талия Розанова, из 85-ти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ервую треть субъектов с наи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ценами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то ситуация по ценам складывае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у нас самая дешевая мороженая неразделанная рыба и охлажденные куры. Мы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стоимости моркови и огурцов, последние дешевле только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первые за многие годы в оптовой сети региона отсутствуют завозные огурцы, что обусловлено увеличением их производства островными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ми.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предложений с материка по данному виду продукции, по причине более высокой цены по отношению к ценам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сказала Наталия Розанов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цена на огурцы совхоза «Тепличный»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17 года упала на 47,4% и составила в среднем 10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продукта в совхозе «Красногорская Заимка» снизилась на 20% и составила 16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Наблюдается снижение цен на говядину, свинину и баранину.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горь Быстров, снижени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местного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благодаря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работе по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егионе.

Анализ ценовой ситуации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мы движемся в вер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ддерживая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развивая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рыболовство. Этим мы обеспечиваем не только ценовую доступность, но и качество продукции, она должн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быть качественнее и свежее, чем завезенная с материка, - отметил он.

На заседании штаба также отметили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начало 2017 года в 1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работает 98 таких объектов торговли. В 1 квартале 2017 года открыто еще 6 магазин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линск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средних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мониторинг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стоимость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них ниже среднеобластн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в среднем на 18%.

## В предстоящую лососевую путину промысел горбуши на юго-западе Сахалина будет закрыт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комиссией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бычи анадромных видов рыб. На заседании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вопрос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объемов добычи (выл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горбуши) в промыслов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шением отраслевог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были одобрены рекомендованные объемы вылова горбуши на северо-западе Сахалина - 1200 тонн, в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ой подзоне - 20 тысяч тонн,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й зоне - 6,5 тысяч тонн и 1,5 тысячи тонн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На юго-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по прогнозу ученых 2017 год в плане промысла горбуши будет крайне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м.

Низкие подходы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на юго-запад Сахалина отмечают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уже нескольких последних лет. В предстоящую путину прогнозируемый возврат настолько низкий, что его будет недостаточно для заполнения нерестилищ.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ож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и на юго-востоке Сахалина река Поронай, а также другие реки заливов Терпения и Анива в лучшем случае заполнятся рыбой на 30%, - доложила Марина Стекольников,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СахНИРО.

Данной проблемой серьезно обеспокоены как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так и рыбац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Наша задача приня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тада горбуши. Важнейшие направления - обеспечи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заполнение нерестилищ и организовать их охрану. К сожалению, большинство рыбодонных уже заводов перефилировано на кету и рассчитывать в этом плане на них сложно,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Игорь Быстров.

Промысел горбуши на юго-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будет закрыт, как дл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так и для рыбаков - любителей.

Прогноз по рыбе крайне скудный. Очень важно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о то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рыбалки на юго-западе Сахалина в заливах Анива и Терпения не будет. Агентству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работать с рыбацкими ассоциациями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эксперимента в 6-мильной зоне, в части работы предприятий прибрежного лова на промысл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мысловых объектов, таких как мойва, иваси, кальмары и т.д. Подготовить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загрузке береговых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мощностей и обеспечению рынков юга острова прибрежными уловами краба, спизулы, морского ежа, трубаха и других высоколиквидных объектов промыс-

ла.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в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чтобы люди с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звешивали все «за» и «против», принимая приглашения поработать на путине, и не верили пустым обещаниям о хороших заработках на больших уловах, - подчеркнул, подводя итоги совещания зампред.

## Базовая медицинская кафедра продолжила работу на Сахалине

Новая группа студентов приступила к занятиям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базовой кафедре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т обычного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кафедра отличается удаленностью от вуза и более глубокое погружение в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В этот раз учебу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ют восемь будущих врачей, из них шестеро - сахалинцы, еще двое - жители Приморья.

Вы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е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А сейч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сё попробовать. Это работа с пациентами, общение с врачами, присутствие на операциях. И если будет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то вы приобретете необходимые навыки, -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студентов в первый день заняти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ариса Згурьева. - В области работает кадров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врачей. С 2013 года в ее рамках пришло 403 специалиста с высшим медицинск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Для работы в первичном звене нам ещё нужны врачи. Советую вам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и на центральные районные больницы. Там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докторов хоро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Первые занятия студентов пятого курса ТГМУ проходят в отделении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Одно из заданий - заполнить историю болезни. У каждого из будущих докторов есть свой пациент. Исходя из результатов осмотра и с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во время беседы им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лн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Варианты дальнейшего лечения студенты обсуждают со свои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также прибывшим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для чтения лекций 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редпочитаю, чтобы студенты сами пришли к верному решению.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талкиваю их к этому. Здесь очень хорошая база по оснащённости, то есть мож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различные методы диагностики, - поясняет доцент института терапии 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ТГМУ Лилия Молдванова. - Первая группа прошла курс обучения на остров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йчас эти студенты готовятся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экзамену, а впоследствии собираются приехать на остров.

Следующие циклы - госпитальная хирургия, травматология-ортопедия. Будет акцент и на инфекционных болезнях, для этого мы поменяем базу, уйдём в городскую больницу. Педиатрию пройдём в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терапию в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4. Дальше у студентов последует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практика. Обучение на шестом курсе они также начнут на Сахалине, - сообщила заведующая базовой кафедро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Янина Гушина. - Пока на остров приехали семь человек, одна студентка в Москв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медицинской олимпиаде.

Такая форма обучения - это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смотреться к лечеб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где будущие доктора хотели бы работать. У некоторых студентов планы уже есть, собираются вернуться в районы, из которых уехали учиться. У будущих докторов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тоже есть конкретные планы.

Здесь чувствуетс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ластей в том, чтобы приехали новые люди, есть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дают квартиры. Я - женатый человек, для меня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 отметил студент 5-го курса ТГМУ Андрей Крылов. - Собираюсь стать онкологом, знаю, что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диспансере готовятся к вводу новый корпус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операционными.

Нравится работа с пациентами, это ре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людям. Где-то полностью вылечить, облегчить состояние, -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ичинах выбора профессии студентка Ангелина Сулова. - Такой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на мой взгляд, очень полезен. Нас здесь не так много, к каждому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Вас учат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е, то есть вы придёте и начнёте сразу работать. Вы сразу начнёте взрослеть, потому что на вас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еред пациентом,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Александр Бейфус. - Мы и сами планируем плотно работать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в плане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на острове базовой кафедры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уководством ВУЗа подписано в 2015-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омимо работы базовой кафедры, проводятся совместные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на которых врачи обмениваются опытом и знакомятся с новыми методиками в лечении и диагностике пациентов.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ы ВУЗа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ллег по выбору методов лечения пациент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올해도 풍성한 '음성품바축제' 흥 넘치는 판 펼친다

### 설성공원 등서 5월 25일 개막

### '품바 레시피 경연대회' 등 선봬

음성군이 올해 음성품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열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올해 음성품바축제는 사랑·나눔·평화를 주제로 오는 5월 25~28일까지 4일 동안 음성 설성공원과 음성꽃동네 일원에서 해학과 신명이 넘치는 재미있는 축제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품바 축제는 "판을 펼쳐라" 등 풍성한 사랑나눔 행사로 Love 품바 페스티벌로 열린다.

새로 선보이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품바 레시피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주요행사는 전국 팔도 품바왕 선발대회, 품바 움막짓기대회,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 관광객과 함께하는 품바공연이 있다. 체험행사로는 전통 한방체험관 운영, 품바 체험하기(의상, 분장, 가락 배우기 등), 친인의 엇치기, 친인의 비빔밥나누기, 떡메치기 등 50여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사랑나눔행사로 최귀동 인류에 봉사대상 시상, 전국 노숙인 위안잔치, 전국



▲ 음성품바축제가 사랑·나눔·평화를 주제로 오는 5월 25~28일까지 4일 동안 음성 설성공원과 음성꽃동네 일원에서 해학과 신명이 넘치는 재미있는 축제로 개최된다. 사진은 품바왕 경연대회에 참가한 품바가 공연을 하고 있다. 음성군 제공

사할린동포 한마음대회 등이 열기를 높일 것이다.

음성군은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새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서울 흥대 앞에서 품바 플래시몹을 여는 등 관람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금왕읍 주민자치위원회 20여명은 품바축제 길놀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의상 200여벌을 만들고 있다.

이 품바의상은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컨셉으로 표현하고, 의상 제작은 주변에 버려지는 폐현수막과 헌옷을 재활용해 만든다.

한편 음성 품바축제는 최근 충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충청투데이)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0

## 한국어로 번역된 푸시킨의 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 대화 Диалог

**선생님:** 앞으로 통역가나 번역가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통역이나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요? 통역이나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눠 보도록 하지요.

**학생1:**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수업 외에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역을 할 때는 우선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한 후에 그대로 다른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어에 집중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게 되니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2:** 제가 볼 때는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나 다른 언어로 통역을 할 때 듣기 능력이 가장 많이 늘고 반대로 한국어로 통역 할 때는 말하기 능력, 즉 표현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학생3:** 저는 성격상 통역보다 번역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통역의 경우 말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통역이 막힙니다. 말하는 사람이 사투리를 사용하거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면 통역이 어려워 집니다. 반면 번역할 텍스트는 표준어인데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봐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4:** 네, 번역을 할 때는 주로 어휘력이 많이 늘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다른 말로 옮기면서 문장력도 어느 정도 느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어 실력을 신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푸시킨의 소설 '대위의 딸' 한국어 번역본 일부분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러시아어 표현이 한국어로 어떻게 옮겨졌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국어로 번역된 푸시킨의 글이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 새로 나온 단어 Новые слова

활동 - деятельность, работа; 장래 - перспектива; 번역 - письменный перевод; 통역 - устный перевод; 말미암아 - зависеть от, благодаря; 효과 - эффект, результат; 마련하다 - подготовить; 생활비 - расходы на проживание; 기능 - функция; 발달 - развитие, рост; 선호 - предпочтение; 반면 -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аоборот; 교정 - исправление; 신장 - увеличение, рост.

### 문법 Грамматика

**Лингвистика. Речь.**  
**Высказывание и речевое общение. Элементы речи**  
**발화 이야기, 이야기 요소**

Человеческая речь всегда связана с определенной ситуацией. Если не понимать ситуации, в которой существует та или иная речь, то полный или точный смысл некоторых высказываний будет не понятен для слушателя.

Например предложение "Который час?" мож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по разному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в которой было употреблено данное высказывание. Если воспринимать данную фразу отдельно, то можно дать ответ, например, "сейчас девять часов". Но если данная фраза была произведен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в отношении к опоздавшему студенту, она обретает иной смысл: "почему ты опоздал?"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если при таком раскладе студент ответит преподавателю: "сейчас девять часов", то это вызовет хохот аудитории.

Итак, при правильном смысловом восприятии речи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свои высказывания, через ее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органами речи, называется высказыванием (발화). Высказывание определяется ситуацией, в ко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и говорящий и слушающий. Высказывания в совокупности составляют речевое общение (이야기).

Будучи минимальной относительно целостной единицей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 высказывани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ечевой знак, то есть конкретный экземпляр предложения в речевой цепи.

В отличие от предложения, высказывание целиком относится к сфере речи: оно принадлежит определенному отправителю, нацелено на определенного получателя, произведено в определенный момент времени, совершено с определенной целью, соотносится в определенным фрагментом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ситуацией), выполняет определенную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функцию и оказывается уместным именно в данной речевой обстановке.

В плане выражения высказывани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фразе, а в плане содержания -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оотносено с конкретной ситуацией, включающей предметную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ситуации.

Анализом содержательной стороны высказывания (его смысла) занимается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прагматика.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우리말로 깨닫다]

## 죄를 짓다, 복을 짓다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다. 그 래서인지 '죄'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연관은 '벌'인 듯하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범 죄라고 한다. 죄는 '저지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저지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의미다. 범하다나 저지르다는 모두 매우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단어이다.

한편 죄를 짓는다는 말도 하는데 '짓다'에는 가치중립적인 느낌이 있다. 짓다는 만드다는 의미인데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한다. 짓다가 들어가는 말을 보면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짓고, 눈물을 짓고 한숨을 짓는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행위의 느낌이 난다.

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 집과 밥과 옷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짓는다는 표현을 썼다. 그 중에서도 집은 짓는 것에 대명사이다. 집의 어원도 짓다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지붕은 집과 어원이 관련되는 어휘이다. 여담이지만 예전에는 '블럭' 장난감을 '집짓기'라고 했다. 집짓기 장난감으로 집만 짓는 것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짓는 것의 기본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짓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아마도 죄를 짓는 게 아닐까 한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짓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아픔이 느껴진다. 죄를 범하는 것이나 저지르는 것과는 다른 감정이 든다. 죄를 지었다는 말이나 죄를 짓는 느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라. 심각한 죄뿐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작은 잘못까지도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즉 법적인 문제만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표현도 생겼다.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표현이 생겼



▲ 조현용(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을 것이다. 그런데 벌을 받는 방법도 다양하다. 주리를 틀고 옥시를 하는 무시무시한 방법도 있었지만 죄를 씻는 데는 다른 방법도 있다. 한국어에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을 짓다'이다.

물론 복을 짓는 행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살아가는 일이 모두 복을 짓는 일이어야 하고, 그래야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는 느낌이 든다면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한다. 보통 우리는 복은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열심히 빌면 복이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많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짓는 것으로도 보았다. 적극적으로 복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복을 짓는 것은 나를 위한 일들이 기본적으로는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한 이에게, 가여운 이에게, 가난한 이에게 잘해야 한다. 그게 복을 짓는 일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산다. 나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죄가 된다.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행복을 바라볼 때 죄스런 느낌이 든다.

이런 때일수록 복을 지어야 한다. 나도 모르는 내 죄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다. 죄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복을 지어야 한다. 죄를 짓는 것에 반대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복을 많이 지어야겠다.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В Сеуле открылся небоскреб Lotte World Tower

2 апреля, по случаю официального открытия здания Lotte World Tower,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Сонпха-гу на озере Сокчхон провели красочное фейерверк шоу и лазерное шоу. В течение 11 минут с 19 часов в небо было запущено 30 тыс. фейерверков, только вес взрывчатых веществ был более 4 тонн, затраты на проведение фейерверка составили 4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3 апреля состоялось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небоскреба. В руководстве Lotte Corporation сообщили, что открытие Lotte World Tower приурочено к 50-летию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компании. В зда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го началось 6 лет назад, 123 этажа, а его высота 555 метр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7 год это самое высокое здание в РК и пятое по высоте в мире. В 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спользовано 50 тыс. тонн стали, чего хватило бы на семь Эйфелевых башен, 220 тыс. кубометров бетона, достаточного для 3.5 тыс. квартир площадью по 100 кв метров. Общая площадь Lotte World Tower составляет 800 тыс. кв. метров.

## Сахалин주민 크세니아 아자로와가 <미스 러시아>콩쿠르에 참가

Сахалин에서 크세니아 아자로와가 <미스 러시아>콩쿠르에 참가한다. 크세니아는 23세로 리차드 바흐와 <포레스트 감프>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극장, 공중 체조를 즐기며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다. 4월 3일 아침 현재 콩쿠르의 공식 사이트에 인기투표에서 크세니아가 425표를 받은 가운데 콩쿠르에는 сахалин의 여성을 포함해 전 러시아에서 총 50명의 미인들이 출전할 전망이다. <미스 러시아>전국콩쿠르는 국내의 대규모 미인선발대회이다. 1927년에 파리에서 시작된 콩쿠르는 현재 러시아연방 문화부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선발전은 러시아 연방 85지역들에서 진행되고 있고 선발전의 출전자는 7만5000여 명이 넘는다.

## Сахалинка Ксения Азарова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е "Мисс Россия"

Сахалинка Ксения Азарова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е "Мисс Россия". Девушка указала о себе, что ей 23 года, она любит Ричарда Баха, фильм "Форест Гамп", увлекается кинематографом, театром, воздушной гимнастикой, любит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утро 3 апрел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онкурса за Ксению отдано 425 голосов.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кой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уют 50 девушек со всей России.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Мисс Россия" — крупнейший проект страны в области красоты. Конкурс был основан в 1927 году в Париж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тборочные туры конкурса проводятся в 85 субъектах РФ, в кастинга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олее 75 000 девушек.

## Сахалин주민, <봄 맞이>행사에 초대

4월 8일 <땅끝에>러시아 실용장식미술센터(유즈노사할린스크시, 쿠릴스카야 거리, 42번지)에서는 <봄맞이>행사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에는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불새>아동민속합창단 솔리스트들의 공연과 <형질으로 새 만들기> 공예교실이 열린다. '새 만들기' 수업은 러시아 화가연맹 회원인 마리아 드미트리예와가 진행한다. 마리아 드미트리예와는 '세르기에브 포사드' 국립역사예술박물관 선임연구자이다.

행사에는 마리아 드미트리예와의 개인 소장품과 сахалин주민미술박물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현대 세르기에브 포사드의 인형들이 전시될 전망이다.

<봄맞이>행사에는 12세이상의 сахалин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초대한다. 행사에 앞서 참가등록을 요한다.

신청은 전화 31-25-25 (화-금 11시부터 17시까지)로. 자세한 정보는 72-36-43, 31-25-25로 받을 수 있다고 сахалин주민미술박물관이 전했다.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Встречу весны"

8 апреля в 14:00 в центре русског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 краю зем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Курильская, 42) состоится мероприятие "Встреча весны".

В программе: выступление солистов дет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хора "Жар-птица" ДШИ "Этнос"; мастер-класс "Изготовление тряпичной птички". Занятие проведет член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ергиево-Пос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к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Мария Дмитриева (Сергиев Посад).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на фоне выставки современной сергиево-посадской игрушки (из личной коллекции Марии Дмитриевой и фонд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На "Встречу весны" приглашают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старше 12 лет. Регистрация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обязательна.

Записаться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31-25-25 (со вторника по пятницу с 11:00 до 17:00).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ам: 72-36-43, 31-25-25,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Сахалин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